

무안군, 남악파크골프장 준공식 개최

18홀 코스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공 맡은 (주)영신건설 고향사랑기금에 100만원 미리 전달



무안군은 지난 17일 삼향읍 남악 일원에서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남악 파크골프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김산 무안군수,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 나광국 전라남도의원, 군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고향사랑기금 전달, 테이프 커팅, 시타,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남악파크골프장 시공을 맡은 (주)영신건설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금에 기부금 100만원을 무안군에 미리 전달해 준공식에 의미를 더했다.

파크골프는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고, 정서 함양과 체력증진에 가장 적합한 생활 스포츠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인기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7월 착공을 시작으로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조성면적 18,802㎡에 파크골프 18홀 코스(A코스 9홀, B코스 9홀)와 사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쉼터 공간을 조성했다.

군은 남악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기는 자연공간이자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준공식에 참석한 한 지역주민은 “그동안 파크골프를 즐기기 위해 다른 지역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주거지 인근에 시설의 조성으로 편리하게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파크골프장 준공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남악신도시 일원에 수영장, 웨이크보드 등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하고, 오룡지구 일원에는 축구장, 농구장 등 종합스포츠 공원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 지도읍 이장협의회-목포 용당1동 통장협의회와 도농교류 자매결연 협약

신안군 지도읍은 지난 16일 목포시 용당1동 통장협의회와 도농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

지도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자매결연 협약식에는 지도읍 김정 이장협의회장과 목포시 용당1동 최형기 통장협의회장 등 양 지역 주민 대표와 지도읍장, 용당1동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양 지역은 이번 자매결연으로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도농간 체험학습 공유 및 체육, 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단체는 농어촌체험과

특산물 구매 등을 통해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 도시민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도농상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형기 용당1동 통장협의회장은 “지도읍의 햇빛연금, 선도 수선화 축제 관련 스토리, 명품순길 조성사업 등 신안군과 지도읍민이 함께 가꾸고 노력한 결실에 대해서 감동하였고 함께 하고 싶은 간절함이 생겼다”면서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교류를 활성화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우기자

목포시, 응급상황 대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 점검

설치 현황·정상 작동 여부·자체 점검 시행 여부 등

목포시가 오는 30일까지 관내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AED는 심정지 환자의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짧은 순간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다시 정상 박동을 찾게 하는 의료기기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도 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심정지 골드타임인 4~6분 이내 심폐소생술과 AED를 시행·사용할 경우 생존율이 80%까지 증가한다. 특

히 심폐소생술만 시행했을 경우에 비해 생존율은 약 3배 이상 높다.

점검대상은 의무설치기관에 설치된 312개이며 시는 현장점검과 서면점검으로 나눠 진행한다. 현장점검 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등이며, 서면점검 대상은 선박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AED 설치현황 파악, 정상 작동 여부, 장비유지 소모품 교체, 관리책임자 지정·교육 여부, 매월 자체점검 시행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장비 설치 미비 등 법령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목포=기동취재본부

“국가대표 제2선수촌을 영광으로”

유치타당성 용역 착수...내년 1월 최종보고회 거쳐 선수촌 유치 활동 박차

영광군이 국가대표 제2선수촌 유치에 도전한다.

영광군은 전남 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국가대표 제2선수촌 유치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영광군이 진행 중인 10개년 단위 체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과제로 제안됐다. ‘제2선수촌 유치사업’은 2022 전남체육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도 전남도 유치사업 중 하나로 제

시됐다.

영광군은 국가대표 제2선수촌이 영광에 유치·건립될 수 있도록 타 시·군보다 먼저 구체적인 유치 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착수보고회에선 제2선수촌 영광군 유치 추진의 강점, 유치 기본계획, 기대효과 등을 보고했다. 영광군은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사항을 반영해 제2선수촌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남풍1단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자 추가모집

11월 28일부터 12월 2일(영구임대는 12월 7일)까지 신청·접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영암군은 11월 16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영암남풍 LH 1단지 공공임대주택의 잔여세대에 대해 입주자와 예비자를 추가 모집한다.

영암 남풍 LH 1단지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이 혼합된 단지로 이번 모집대상

은 영구임대 예비자 10호, 국민임대 입주자 19호와 예비자 39호, 행복주택 입주자 8호와 예비자 8호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년 11월 1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보유기준 등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11월 28

일부터 12월 2일까지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암읍 농업인상담소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자는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관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모집한다.

영암=조대호기자

함평군, 청·장년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호응’

함평군이 지역 청·장년을 대상으로 마케팅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함평군은 “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에서 지난 17일 청·장년, 주민, 공무원 등 270여 명을 대상으로 경영·마케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9월 읍·면별 청장년 워크숍

을 통해 경영·마케팅 분야에 대한 지역 청·장년들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날 강의는 ‘마케팅, 나도 한다!’라는 주제로 마케팅의 정의에서부터 성공사례, 마케팅 전략수립 방법 등에 대해 다루졌다.

함평=김광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